

安山新聞

2008년 3월 19일 수요일 (주간)



평화의 집 '사랑의 봉사'

농촌공사 화안사업단

한국농촌공사 화안사업단(단장 이철오) 직원들이 12일 고잔동 소재 사랑의 선녀수녀원 평화의집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봄맞이 대청소를 돕는 등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.

화안사업단 소속 '사랑나눔 봉사' 동호회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로 지난해 구성돼 활발한 봉사활동을 펴오고 있다.

동호회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씩 떼어 기부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2명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. 또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군 천리포해수욕장에서 복구지원을 돕는데 팔을 걷기도 했다.

이 동호회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는 이철오 단장은 "앞으로도 헌혈 동참, 무의탁 노인복지시설 지원, 소년소녀가장 돕기, 자연보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강형민 기자 khm@ansansm.co.kr

담당	팀장	단장	3월	결
한	영	철	일	제